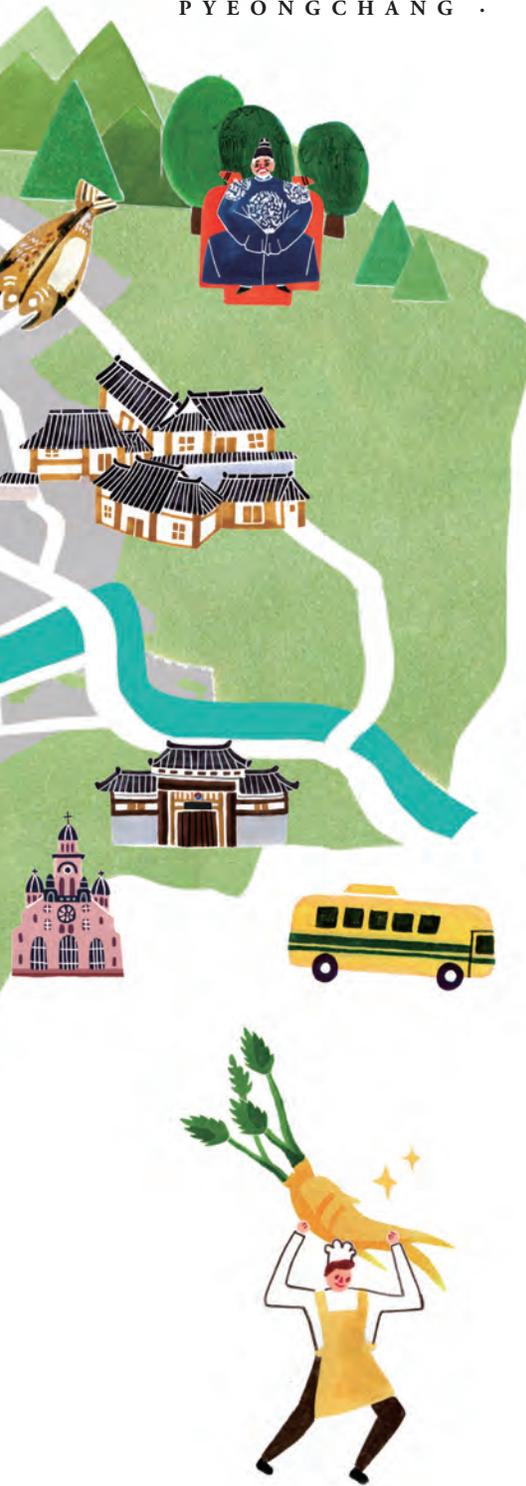


PYEONGCHANG · JEONJU · JEJU · SEOUL · BUSAN

맛있는 한식여행

다섯개의도시다섯개의맛



맛있는 한식여행

다섯 개의 도시 다섯 개의 맛

발행일 2016년 3월 31일

발행처 (재)한식재단 한식홍보팀

기획 · 편집 · 디자인 (주)어라운드

(재)한식재단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306호 (재)한식재단

TEL 02-6300-2052

www.hansik.org

www.twitter.com/hansikkorea

www.facebook.com/hansikkorea

이 책의 저작권은 한식재단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책자는 한식세계화 공식 포털(www.hansik.org)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음과 가음은 맛을 나타내며, 양음과 음음은 향을 나타낸다.
상음과 가음이 먼저 나타날수록 향과 맛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향과 맛이 먼저 나타날수록 상음과 가음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향식, 유행을 갖추다



THE TASTE OF KOREA
H A N S I K

CONTENTS

01

메밀과 평창

PYEONGCHANG

12



02

약초, 니물, 산채와 전주

JEONJU

32



03

흑돈과 제주

JEJU

52



04

서울 음식투어

SEOUL

72



05

부산 음식투어

BUSAN

92



06

찾아보기

INDEX

112



한식재단은 한식과 한식문화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식산업 육성과 콘텐츠 개발, 마케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발간사

한식이 조화와 균형을 갖춘 음식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각 지역별 특색 있는 한식과 한식문화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자원으로써 한식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식관광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식재단은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맛있는 한식여행'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한식재단에서 개발한 음식관광투어코스와 더불어 서울, 부산, 전주, 평창, 제주의 지역별 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향토음식, 가볼 만한 지역 명소와 한식당, 즐길 거리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식에 애정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이 한식과 음식관광을 즐기시는데 '맛있는 한식여행'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지역 외식산업 육성과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식재단의 한식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1 PYEONGCHANG

메밀과 평창

'메밀은 성질이 평하고 냉하며, 맛은 달고 독성이 없어 내장을 튼튼하게 한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메밀의 주요 성분 중 루틴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 출혈성 질환을 방지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건강을 좋게 한다. 체질적으로 열과 땀이 많은 사람에게 주효하다. 주로 가루를 내어 전이나 국수 등으로 섭취하며,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효능을 가진 메밀이지만,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보다는 그 고유의 맛을 즐기기를 추천한다. 새콤달콤한 육수에 푹 담가먹는 메밀국수, 아삭한 메밀 싹을 함께 버무리는 새싹비빔밥,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먹는 메밀전병 등은 소화가 잘 되어, 아무리 먹어도 무리가 없다.

언제나 설경, 평창



강원도는 언제나 설경 속에 있을 것만 같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품고 평창으로 떠난다. 몇 개의 터널을 지나 버스는 작은 터미널에 도착한다. 색 바랜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대합실.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보니 이 도시에는 키가 높은 건물들이 없다. 대신 설산이 보이고, 채 녹지 않은 지난밤의 폭설이 거리 곳곳에 쌓여있다. 쉽게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택시를 잡아탄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장돌뱅이의 마을 봉평이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 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봉평은 개울이 흐르고, 물레방아가 있으며, 때가 되면 장이 서고,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마을이었다. 그때만큼 활기찬 모습은 아닐 테지만 이곳을 걷다 보니 하나 둘 상상 속 풍경이 눈앞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메밀꽃이 피는 시기는 9월 초순쯤이라고 한다. 그 즈음이면 이효석문화제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쉬움을 뒤로 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대관령으로 향하는 길에는 버스를 이용한다. 터미널에서 대관령까지는 30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된다. 대관령 역시 조용한 분위기이지만 조금 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느낌이다. 길가에는 명태를 건조하는 덕장들이 늘어서 겨울의 마지막을 이겨내고 있다. 그곳에서 겨울바람을 맞은 명태는 점점 빛이 누래지고 살이 연하게 변하며 제 몸에서 비린내를 없앨 것이다. 그리고 부드럽고 쫄깃한 황태국을 우려내는 데 쓰이겠지. 마침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방문한 외국인들이 식당으로 들어간다. 저절로 침이 삼켜진다.

목장에 들르기 위해 다시 택시를 이용한다. 대관령 시내에서 삼양목장까지 택시비는 일괄적인 금액으로 책정되어 운행한다. 대관령까지는 굵이굵이 흙 길이 펼쳐져 있어 차도 사람도 함께 흔들린다. 하지만 곧 눈앞에 펼쳐질 초원을 상상하자, 그런 과정들이 달게만 느껴진다. 마침내 목장에 도착했을 때 끝없이 쌓인 눈을 본다. 하얀 설경에 곧 눈이 멀 것만 같다.



THE TASTE OF PYEONGCHANG

평창의 맛

강원도는 전체의 80퍼센트가 산지로 이루어져 농작을 위한 토지가 부족한 것 사실이다. 하지만 평창을 여행하는 여행자라면 먹거리 걱정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 물 좋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사육한 대관령 한우가 첫 번째요,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부드럽고 쫄득해진 황태가 두 번째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무대인 봉평에서는 입맛을 돋우는 다양한 메밀요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 외에도 송어나 감자 같은 식재료 역시 평창을 최고로 친다. 직접 경험해본 바 한식의 더 깔끔하고 깊은 맛을 연구하는 실험정신은 평창을 따라올 곳이 없어 보인다.

01

미가연

메밀요리



봉평에 갔으면 미가연에 들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메밀음식을 내오는 곳이다. 대표메뉴인 이대팔메밀국수를 비롯해 메밀쌈 육회비빔밥, 메밀전병 등 메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찾아와 부러워할 만큼 고집스럽게 메뉴개발에 힘쓴다. 특히 메밀음식문화연구소에 직접 개발한 이대팔메밀국수는 된장과 매실엑기스를 베이스로 한 육수와 백 퍼센트 메밀 면을 사용하여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챙겼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된다면 주인에게 직접 메뉴추천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08 T. 033 335 8805 O. 09:30~20:00(연중무휴) H. migayon.co.kr P. 전용 주차장 이용

02

일송정

대관령 한우



21년간 대관령 한우만 취급한 한우전문식당이다. 일정 개월만 채우면 지역 한우로 인정해주는 포괄적 한우 개념이 아닌, 축협에서 직접 사양관리 한 대관령 한우만을 사용한다. '평창 축협 대관령 한우'라는 브랜드 파워에 걸맞게, 고기의 품질이 일정하고 맛이 우수해 먼 곳에서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정육형 식당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부위별로 포장된 고기를 선택할 수 있다. 살치살과 안창살 같은 특수부위를 많이 선호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등심이 특히 추천할 만하다. 육회와 한우국밥 또한 이곳만의 자랑이다.

A.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93 T. 033 333 7043 O. 10:00~22:00(연중무휴) H. isj-hanwoo.com P. 전용 주차장 이용

03

황태회관

황태요리



평창 황태거리의 터줏대감으로 25년간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 없는 황태요리 전문식당이다. 수작업으로 구워 그릴에 얹어 나오는 황태구이와 깊은 맛의 황태국, 술안주로 제격인 황태찜, 소고기와 버섯을 함께 조리한 황태불고기까지, 그야말로 황태로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모두 모여 있다. 외국인 여행자들을 겨냥해 개발한 황태강정과 황태가스, 황태햄버거는 모두 특허를 받은 상태이다. 처음 열 개의 상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천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식당이다.

A.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T. 033 335 5795 O. 06:00~22:00(연중무휴) P. 전용 주차장 이용

THE HERITAGE OF PYEONGCHANG

평창의 멋

평창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기후를 가지고 있어 휴양과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이다. 연중 기온이 낮아 여름철 피서지로 적당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거나 설산을 오르는 사람들로 늘 만원이다. 계곡 래프팅과 패러글라이딩, 목장 투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런가 하면 작은 마을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도 제격이다. 특히 가산 이효석의 소설세계를 구현한 봉평 마을은 교육적으로도 꼭 들러볼 만한 가치가 있다. 최근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더 주목받고 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평창시는 길을 넓히는 등 보다 나은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수월한 여행을 위해서는 교통편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택시의 경우 비교적 이용이 편리하지만 버스는 시간이 드물고 노선마다 헛갈리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봉평문화마을

명소

A.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애강나무길 14

T. 033 330 2742

H. yes-pc.net

1930년대 장돌뱅이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메밀꽃 필 무렵》은 강원도 봉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효석의 단편소설이다. 1990년 이효석문화마을로 지정된 봉평면 창동리 마을은 매년 가을, 들판에 피어난 하얀 메밀꽃이 장관을 이룬다. 허생원이 동이를 입고 건너던 흥정천, 물레방앗간, 충주집 등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들을 비롯해, 이효석의 작품세계를 전시한 이효석문학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효석문화제에서는 문학 강좌와 민속놀이 체험, 장터 재현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열리니 참고할 것.



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

올림픽 시설

A.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T. 033 339 0000

O. 10:00~18:00

H. alpensiaresort.co.kr

P. 전용 주차장 이용

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는 알펜시아의 랜드마크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국내외 동계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스키역사박물관과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모노레일을 타고 스키점프대 가장 상층부 전망대에 오르면 알펜시아 전경과 대관령 전역을 조망할 수 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멀리 보이는 설경은 전혀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 외에도 생태학습원과 다양한 콘서트, 스키와 골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대관령삼양목장

명소

A.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T. 033 335 5044

O. 08:30~일몰시

H. samyangranch.co.kr

P. 전용 주차장 이용

대관령 일대 600여 만평에 이르는 동양최대의 초지목장이다. 1972년 처음 목장을 계획하고 고랭지에 적합한 초지를 만드는 데에만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여의도의 7.5배에 이르는 목장에는 900두의 육우와 젖소가 거닐고 있으며, 양과 타조 방목장, 영화 촬영지, 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걸어서 목장 전체를 둘러보는 것은 힘든 거리로 셔틀버스를 이용, 부분적으로 산책로를 걷는 방식으로 관람한다. 사시사철 변하는 풍경이 아름다워 사진가들의 출사지로 유명하며, 연인과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에도 만족스러운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정강원

한옥

A.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금당계곡로 2010-13

T. 033 333 1011

H. jeonggangwon.com

P. 전용 주차장 이용

드라마 <식객>의 촬영지로 유명한 정강원은 한국전통음식체험관이다. 한정식을 비롯한 음식체험은 물론이고 인절미 만들기, 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 음식박물관과 한복체험관을 함께 두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무엇보다 한옥에서 머물며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산이 있어 조용하고, 계곡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른다. 규모나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어 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나 학교, 기업 등의 워크숍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예정이라니 더욱 기대된다.



대관령800마을

펜션

A.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가시머리길 36-16

T. 033 332 1010

H. best800.kr

P. 전용 주차장 이용

대관령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독채펜션이다. 휴식과 재충전을 모토로 삼는 곳으로,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 위에 축대나 담장 없이 설계되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모두 여덟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휴식을 위해 만든 건물들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각 동마다 주인이 다르고 그 모양과 분위기도 각각 다르다. 30평에서 50평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채나 여러 가족으로 구성된 여행객이 많이 찾는다. 독채펜션으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바비큐 세트를 준비해준다.

한눈에 보는 평창 여행



- 01. 봉평문화마을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애강나무길 14 | 033 330 2742
- 02. 미가면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08 | 033 335 8805
- 03. 일송정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93 | 033 333 7043
- 04. 정강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금당계곡로 2010-13 | 033 333 1011
- 05. 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033 339 0000
- 06. 웰컴투동막골세트장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읍지리 | 033 332 8158

- 07. 오대산국립공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2 | 033 332 6417
- 08. 월정사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033 339 6800
- 09. 한국자생식물원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비안길 159-4 | 033 332 7069
- 10. 황태회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 033 335 5795
- 11. 대관령삼양목장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 033 335 5044
- 12. 대관령800마을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가시머리길 36-16 | 033 332 1010

평창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렸던 1, 2, 3차 IOC 총회에서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던 감동의 순간을 기억한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개최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그 감동은 더욱 크게 와 닿는다. 평창에서는 개최식과 폐회식, 그리고 대부분의 실상 경기가 개최되고, 강릉에서는 빙상종목의 전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개최로 강원도에서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계곡 물이 굽이굽이 모였다 흠뻑 흠뻑 사람들의 길을 만드는 아우라지와 한국인의 정서가 그대로 녹아 들어간 정선아리랑은 강원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메밀꽃 필 무렵의 아무도 모르는, 혹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봉평부터 강원도의 눈꽃 트레킹까지 도저히 눈길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강원도에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다. 세계인의 축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강원도 특유의 분위기와 풍경을 많은 이들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주목할 종목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은 몇 년 전, 공중파 예능을 통해 열악하기 그지없던 현실이 그대로 방영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비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어려운 상황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다. 변변한 경기장 하나 없이 산길과 아스팔트,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오가면서 훈련했던 현실을 생각하면 내일의 성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했는지 상상하게 된다.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월드컵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금메달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점프

스키점프 종목은 영화 <국가대표>의 소재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아파트 30층 높이의 점프대에서 평균 시속 80킬로미터로 활강하여 날아오르는데, 실은 이 시간은 4~5초에 불과하다.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부터가 진정한 훈련의 시작이 된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의 스키점프는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그들 가까이에서, 곁에서 들려줄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그들이 진정 우리의 '국가대표'임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컬링

'집 잃은 닭'이라 하며 귀여운 발상으로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졌던 컬링은 사실 여자 대표팀에 비해 남자 대표팀이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치 올림픽에서 여자 대표팀이 아름다운 활약을 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출전권을 놓치며 아쉬움만을 되새겼던 것이다. 이러한 시련은 그들의 튼튼한 성장 자양분이 되었고, 다양한 훈련의 패턴으로 단련을 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이 있었지만 놀라운 성적을 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성 대표팀과 남성 대표팀 모두, 금빛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끊임없이 응원할 것이다.

02

JEONJU

약초, 나물, 산채와 전주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병을 치료했다. 사람마다 체질을 나누고 식재료를 연구해 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건강한 땅에서 자란 채소는 꾸준한 섭취만으로도 만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름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초와 나물은 먹는 방법 또한 제각각이다. 고사리나 버섯 등은 기름에 볶아야 풍미가 살아나고, 시금치나 콩나물 등은 데쳐서 먹어야 식감이 좋다. 산나물은 새순이 뜯는 4~5월경에 채취해 볶은 후 말려 저장한다. 그렇게 보관한 나물은 조리 시에 꺼내어 물에 불려서 먹는데, 고유의 향을 살리기 위해 산채비빔밥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속이 동그란 낫그릇 안에 찰진 밥과 콩나물, 각종 산나물을 넣은 다음 들기름만으로 향을 돋운다. 일반적인 비빔밥과 달리 고추장을 넣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나물 하나하나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이다. 뜨거운 돌솥에 물을 붓고 넣어붙은 밥을 끓여내어 적당히 간이 밴 나물과 함께 먹는 것. 맛과 건강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으로의 여행, 전주

여행,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는 상상은 늘 옳다. 도시에 지친 사람은 자연을 찾게 되고, 무료한 일상을 살던 사람은 도시의 번잡함이 그립다. 세련된 거리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즈넉한 풍경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는 여행자 모두에게 공평한 여행지임에 틀림없다. 고층빌딩의 화려한 불빛이 거리를 수놓는 도심과 낮고 조용한 돌담이 미로처럼 펼쳐진 마을, 활기 넘치는 지역주민과 재기 발랄한 청년들이 함께 물건을 파는 곳, 조금만 눈을 멀리 보면 사시사철 계절의 옷을 갈아입는 영험한 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눈과 입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음식들의 고향이 이곳 전주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행렬과 상춘객들의 상기된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 들뜬 마음을 다잡고 창 밖의 풍경들을 감상하기도 잠시, 어느새 기차는 전주역에 도착한다. 한옥의 도시답게 기차역 또한 멋스러운 기와를 뽐내며 여행객들을 맞고 있다. 기차역과 가까운 안내센터에서 전주여행 코스를 상담 받고 처음 도착한 곳은 한옥마을이다. 한복을 차려 입은 채 마을을 산책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다면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듯한 마음마저 든다.





길거리 음식 또한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인데, 간편하게 꼬치에 끼워서 먹는 떡갈비나 수제 초코 파이, 각종 소스로 맛을 낸 꼬치는 줄을 서야 맛볼 수 있을 정도다. 길가에 터줏대감처럼 자리잡은 단팔 가게를 찾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뛰니뛰니해도 가맥집(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는 일)을 지나칠 수 없다. 가맥집의 유명세 덕에 전주는 낮술을 마셔도 너그럽게 봐주는 도시가 됐다. 병맥주를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연탄불에 구운 황태를 먹기 좋게 찢어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비로소 여행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은 법. 조금 아쉬움이 남을 즈음 자리를 옮겨 청년들이 마련한 상점가로 향한다. 야시장의 활기찬 모습들, 살아있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풍경이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꾸민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전주 여행의 하이라이트이다. 피곤한 몸을 누일 때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따뜻한 국밥에 모주 한잔 마실 생각을 하면, 어쩐지 성공적인 여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THE TASTE OF JEONJU

전주의 맛

여행을 하며 가장 즐거운 경험을 꼽으라면 바로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마주할 때이다. 단 한끼도 허투루 흘려버릴 수 없는 선택의 시간 앞에서 여행자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전주에서라면 그 망설임을 잠시 접어두어도 좋다. 전주는 예로부터 기후가 좋고 땅이 기름져 풍부한 곡식과 각종 해산물, 나물 등 식재료가 넘치고, 그 가짓수만큼이나 음식에 쏟는 정성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음식 콩나물국밥을 비롯해 비빔밥, 떡갈비 등 궁중요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느 곳을 찾아도 실패할 리 없는 솜씨 좋은 가게들이 즐비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을 찾았다. 새벽 동이 터오기 전부터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준비하며 배고픈 이들의 든든한 한끼가 되어준 식당들. 서민들의 가장 가까운 음식 콩나물국밥과 부드러운 피순대, 정성껏 채취한 약초와 나물로 맛을 낸 산채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여기에 있다.

01

삼백집

콩나물국밥



삼백집의 창업자 이봉순 할머니는 아무리 많은 손님이 찾아와도 하루에 삼백 그릇 이상은 팔지 않았다고 한다. 정성을 다해 만들 수 있는 양이 딱 삼백 그릇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름 붙인 삼백집은 60년간 메뉴 하나로만 승부한 대표적인 콩나물국밥 전문점이다. 현재는 전국에 스무 개가 훨씬 넘는 체인점을 내고 있지만 진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전주 본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배기에 무농약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듬뿍 넣고 밥과 함께 팔팔 끓여낸 다음 수란을 넣어주면 완성이다. 여덟 가지 한약재를 넣어 끓인 전통주 모주를 함께 마시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그만이다.

A.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시2길 22 T. 063 284 2227 O. 24시간 영업 H. 300zip.com P. 전용 주차장 이용

02

조점례남문피순대

—
피순대



남부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피순대를 전문으로 하는 골목이 나온다. 그 중 조점례남문피순대는 1960년대부터 이곳을 지키온 터줏대감이다. 손바닥만 한 대폿집으로 시작을 한 것이 그 맛과 정성을 인정받아 현재는 하루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채워가는 지역 명물로 성장했다. 얼큰한 양념과 함께 끓인 순대국밥은 국물보다 내용물이 더 많을 정도로 푸짐한 양을 자랑한다. 갯잎 위에 부추를 올리고 초장에 찍은 피순대를 함께 싸먹는데, 당면으로 속을 채운 일반 순대와 달리 피순대는 선지와 고기의 비율이 더 높아 식감이 부드럽다. 무심한 듯 모든 손님에게 안부를 묻는 조점례 할머니의 인심이 정겨운 곳이다.

A.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2-198 T. 063 232 5006 O. 24시간 영업(연중무휴) P. 남부시장주차장 이용

03

심원첫집

—
산채정식



지리산 노고단 심원마을의 첫 번째 집이라고 하여 심원첫집이라 이름 지었다. 직접 채취한 약초와 산나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든 지 20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맛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5년 전 접근성이 좋은 남원으로 이사했다. 주요 메뉴는 30여 개의 반찬이 함께 나오는 산채더덕정식이다. 돌솥밥과 각종 약초와 나물을 대접에 담고 들기름으로 비벼 더덕과 함께 먹는다. 나물 특유의 향을 즐기게 위해서 고추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채소만으로는 허전한 손님을 위해 백숙과 흑돼지 두루치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언제 찾아도 양질의 맛을 볼 수 있지만 재료 수급이 활발한 5월이 방문하기에 가장 좋다.

A. 남원시 모정길 21-3 T. 063 632 5475 O. 09:00-20:00(연중무휴) P. 전용 주차장 이용

THE HERITAGE OF JEONJU

전주의 멋

전주를 여행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한옥마을이다.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한 경기전을 비롯해 전통성당, 벽화거리 등 골목마다 옛 풍경들이 펼쳐져 있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걷기에 좋은 곳이다. 낮은 돌담 사이, 한복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다면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한옥마을에서 고즈넉한 시간을 보냈다면 남부시장을 둘러볼 차례다. 전주의 명물 풍남문을 한 바퀴 돌아 시장에 닿으면 포묵상과 먹거리 등 정겨운 재래시장이 펼쳐진다. 시장 한쪽에는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청년몰'도 있다. 젊은 감각으로 꾸민 식당과 소품 가게, 술집 등 젊은 기운과 옛 풍경이 어우러지며 인상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 도시에서 벗어나 좀 더 한적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가까운 지리산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창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만한 들레길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산행을 마치고 맛보는 자연의 음식들은 몸과 마음을 두루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한옥마을

명소

- A. 전주시 완산구 교동
- T. 063 282 1330
- H. tour.jeonju.go.kr
- P. 한옥마을공영주차장 이용

1977년 한옥마을 보존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풍남동 일대 7만여 평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600여 채의 전통한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일제 상인들을 피해 터를 만들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영정은 봉안한 경기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손꼽히는 전통성당, 보물 308호 풍남문 등 역사적 의미를 가진 다양한 건축물들이 모여 있다. 마을로 들어서면 오래된 석벽과 전통 문양의 기와가 조화롭다. 거기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사람들이 많아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마저 든다. 종류별로 관광 코스가 가장 발달한 곳 중 하나이므로 안내센터에서 지도와 가이드를 챙기는 것이 좋다.



전일갑오

가맥집

A.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6

T. 063 284 0793

O. 15:00-01:30(일요일 휴무)

가게에서 맥주를 마신다고 하여 '가맥집'으로 불리는 전일갑오이다.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해 지금은 황태포와 갑오징어를 구워 파는 집으로 더 유명해졌다. 시원한 병맥주를 유리잔에 따라 마신 다음 포슬포슬하게 구운 황태포를 이곳만의 특별한 소스에 찍어 먹는다. 단순하지만 훌륭한 조합이다. 단출한 메뉴구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을 찾게 되는 데에는 비단 맛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만 느낄 수 정겨운 정취가 있기 때문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지갑이 가벼운 주당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다. 오후 3시부터 문을 여는 탓에 자칫 낯설어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지리산둘레길

하이킹

A.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T. 055 884 0850

H. jirisantrail.kr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을 둘러싼 22개의 코스를 말한다. 산을 수직으로 오르는 등산과는 달리 완만한 경사의 평지를 걷는 방법이라 하이킹에 가깝다. 10킬로미터 미만에서 2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까지 다양한 구간이 있어, 시간과 체력을 고려해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산채 음식으로 유명한 남원지역은 '주천-운봉' 구간을 꼽을 수 있는데, 지리산 서북 능선을 조망하며 해발 500미터의 운봉 고원과 마을길, 제방길을 걷는 비교적 편안한 코스이다. 동절기 정비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편안한 신발과 충분한 수분섭취, 준비운동 등이 필수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인당

전통가옥

A.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45

T. 063 284 9929

H. 학인당.com

P. 한옥마을공영주차장 이용

학인당은 수원 백씨 인재공백낙중 종가의 종택으로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가옥이다. 한옥마을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택이며, 서화순 종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애초에 소리 공연을 위해 특화된 건축물로 울림을 좋게 만들기 위해 천장을 높이고 대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본채와 사랑채, 별당채는 예약을 통해 숙소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전통한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사로 제공되는 종가집 조반상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종부와의 대화, 규방다례 체험, 국악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학인당의 자랑이다.



안녕, 제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A. 전주시 완산구 전통성당길33-9

T. 063 285 0085

H. hellojeje.com

P. 전용 주차장 이용

2014년에 문을 연 2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로 '전주 Jeonju'의 영문 앞 글자를 따 제제라고 이름 붙였다. 한옥마을의 많은 숙박업소들이 한옥을 개조해 만들어졌다면 이곳은 마당과 테라스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마당의 나무 그네와 실내 곳곳을 장식한 감각적인 소품들은 여행의 설레는 기분을 한층 더해준다. '꿈꾸는 다락', '골목바람', '비밀의 방' 등 각각 다른 콘셉트로 꾸며진 9개의 방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2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인 만큼 조용하고 깔끔하게 운영되며, 조식은 지하에 마련된 카페테리아에서 가능하다. 와이파이와 상비약 등 소소한 서비스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전주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전주국제영화제(JIFF)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에 최초로 개최되면서 영미권과 유럽, 러시아, 호주,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영화를 상영해왔다. 부분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기존의 주류영화와는 다른 대안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자유, 독립, 소통'이라는 슬로건 그대로, 저 예산 독립영화의 자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 만들어진 영화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금 서툴더라도 다양한, 보통의 상식과 관념을 깨트리는 혁신적인 영화를 추구한다. '대안 영화', '디지털 영화', 그리고 '아시아 독립 영화'를 중심으로 이 신념은 대중에게 전달된다. 그렇게 영화는 버겁기 그지없던 우리네 일상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는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사람들의 웃음 끝으로 혹은 눈물 머리에 영화의 이야기가 서려있다. 결국,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의 이야기가 된다. 공감과 이해, 대화와 토론이 뒤따르며 영화제는 잔뜩 시끄럽다. 봄날, 전주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길거리 풍경과 영화의 다채로운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울림이 된다. 영화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서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영화제 특유의 따스한 분위기와 함께, 소담스러움이 소란스러움과 거리가 먼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전주비빔밥축제



비빔밥은 오랫동안 전주의 상징적인 음식이 되어 왔다. 표고버섯과 고사리, 도라지, 황포묵, 취나물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식고 기 육회감을 따뜻한 밥 위에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비벼먹는 맛이 일품인지라, 이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기가 영 힘들다. 무엇보다 전주 비빔밥은 맑은 콩나물 국과 함께 먹으니 뒷맛까지 깔끔하다. 전주가 워낙 '맛'의 도시로 소문났기 때문에 비빔밥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들이 주목을 받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비빔밥을 중심으로 <전주비빔밥축제>가 완성되었다.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가 비빔밥의 본 고장이라는 자부심에 예술적인 면을 더해 풍성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 축제 내에는 전주향토음식경진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요리경연대회, 비빔쿠키콘서트, 그리고 비빔공연까지 다양한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구성되었다. 축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대를 관람하고, 미리 준비된 것들을 수동적으로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방문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활기찬 축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최근 전주에서 한복을 입고 전주 한옥마을을 활보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많은 젊은이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빔밥과 예술 문화공연이 함께 어울린 전주비빔밥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로이 맛과 멋, 그리고 흥이 될 것이다. 전주비빔밥축제는 매년 10월 경에 열리며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bibimbapfes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

JEJU

흑돈과 제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검은 털을 가진 흑돼지이다. 외국 종에 비해 몸과 엉덩이가 작고 살집이 많이 없는 편이다. 제주도의 흑돼지는 사람의 인분을 먹으며 사육했다고 하여 똥돼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분을 먹고 자란 돼지는 미생물과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므로 보통 돼지보다 면역력이 강해진다. 양돈 돼지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주의 흑돼지가 맛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건강한 사육 형태와 전통적 생활풍토에 적응한 육질에 있다. 특히 지방이 촘촘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쫄깃함이 강하게 느껴진다. 제주 사람들은 마을에 행사가 있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기면 흑돼지를 잡아 나눠먹곤 했다. 그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는 흑돼지를 노릇하게 구운 다음 멜저에 찍어 한 입 크게 먹는 일. 제주를 여행하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제주

제주는 둥글다. 그것이 제주 여행의 포인트다. 둥그니까 그저 앞으로만 나간다면 언젠가는 제주의 모든 곳을 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여행이란 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뤄지기 마련이고, 걸을 수 있는 방향 또한 제한적이다. 평소였으면 스쿠터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겠지만 아직 서늘한 날씨 탓에 자동차를 빌린다. 제주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많지 않고 땅이 넓어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라산과 인접한 종단도로는 웬만한 실력자도 꺼릴 만큼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다른 국도를 이용하거나 해안도로로 다니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제주 동쪽에 모여있다. 성읍민속마을을 산책하며 옛 풍경을 상상하고 돌하르방의 코를 만져보기도 한다. 멀리서 옛집 초가지붕의 짙을 끄는 마을 주민들도 보인다. 과거에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두 번째 목적지는 성읍민속마을과 인접한 김영갑갤러리이다. 두모악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제주를 사랑한 사진작가 김영갑의 작품이 전시된 곳이다. 그는 난치병에 걸려 제주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제주를 담고자 했다. 사진 속의 김영갑은 눈이 깊은 사람이다. 제주의 돌처럼 까맣고 바람처럼 깊은 사연을 가진 사람. 그가 찍은 오름 사진을 보다가 문득 시계를 본다. 그리고 지도를 펼쳐 가장 가까운 오름을 찾아본다. 그렇게 다시 차를 몰아 한적한 도로를 달린다. 멀리서 제주의 별판 위로 완만하게 솟은 오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용이 누워있는 형상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는 용눈이오름이다.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언덕이 완만해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보인다. 10여 분 남짓 걸었을까, 정상에 오르자 세 개의 능선이 부드럽게 굽이치며 서로를 감싸고 있다. 멀리 제주의 동쪽 바다와 성산일출봉도 보인다. 하늘은 가깝고 멀리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밤이 되면 별을 볼 수도 있겠지. 어쩐지 제주의 느린 시간이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THE TASTE OF JEJU

제주의 맛

육지와 바다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맛이 제주에 있다. 사면이 바다인 만큼 옥돔과 자리돔, 전복, 갈치 등 각종 해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방식으로 키워온 흑돼지와 한라산에서 채취한 표고버섯, 평 요리까지, 타지에서는 구하기 힘든 식재료로 맛의 축제가 펼쳐진다. 제주의 음식은 기본적으로 양념을 많이 치지 않고 간단한 조리법을 선호한다.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은 재료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생선을 이용해 국을 끓이거나 회를 떠서 먹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많은 제주 음식들 가운데 가장 별미로 꼽히는 갈치구이와 돌돔, 흑돼지 요리를 소개한다.

01

제주해풍

—
돌돔코스



2005년부터 10여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서귀포의 자연산 활어회 전문 식당이다.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한 돌돔이 인기메뉴로 꼽힌다. 횡감도 횡감이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뉴들이 훌륭한데, 물회, 옥돔구이, 우럭튀김, 전복구이 등의 기본요리를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나눠 세 번에 걸쳐 내온다. 제주도민 단골의 비중이 높다. 모든 공간이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대 자리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특히 이용하기 편리하다.

A. 제주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1 T. 064 763 1008 O. 11:00~22:00(연중무휴) P. 식당 앞 길거리 주차

02

돈향기

—
흑돼지전복구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복을 불편해 달걀먹는 모습에서 착안해 처음으로 흑돼지전복세트를 시도했다. 달궈진 돌판 위에 자체 숙성시킨 흑돼지와 전복을 올려 함께 구워 먹는데, 흑돼지 특유의 고소한 맛과 쫄깃한 전복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식감을 자랑한다. 후식으로는 생면을 사용한 백년초 메밀국수가 제공되며 여느 국수 전문점 못지않은 맛으로 사랑 받고 있다. 고소하고 톡톡 씹히는 날치알 볶음밥 역시 별미다. 8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자칫 시간을 잘못 맞추면 한참 줄을 서야할지도 모른다.

A.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15길 30 T. 064 724 0228 O. 14:00~24:00(연중무휴) P. 공영주차장 이용 후 주차권 제공

03

춘심이네

—
갈치구이



제주에는 많은 갈치구이가 집이 있지만 춘심이네만큼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드물다. 한림수협에서 제공받은 갈치를 특허 받은 구이 틀에 넣어 통으로 구워 내는데, 맛과 서비스 모두 만족스럽다. 짜지 않고 담백한 맛도 일품이지만, 일일이 가시를 발라주는 서비스 덕에 손가락으로 갈치를 떠먹어도 괜찮다는 것이 이곳만의 자랑이다. 넓고 쾌적한 실내와 반듯한 차림의 종업원들 또한 믿음직스럽다. 성계와 전복을 전문으로 하는 2호점과 면 요리를 다루는 3호점, 곧 문을 열 흑돼지 전문 4호점 등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거의 모든 메뉴는 춘심이네로 통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A.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24번길 16 T. 064 794 4010 O. 10:00~20:30(연중무휴) H. choonsim.co.kr P. 전용 주차장 이용

THE HERITAGE OF JEJU

제주의 멋

제주를 여행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를 빌리거나 스쿠터 여행을 계획하는데,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역시 자주 있는 편이어서 이동에 큰 무리가 없다.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시에서 처음 여행을 시작한다면 먼저 이동 방향을 결정해 움직여야 한다. 해안선이 아름다운 서쪽과 관광지 특화된 남쪽, 자연풍경이 근사한 동쪽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특히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김영갑갤러리와 성읍민속마을, 중문관광단지과 산방산같이 인접한 장소를 묶어서 여행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산과 바다, 산책로와 등산로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를 여행자들의 가장 매력적인 장소임에 틀림없다.

성읍민속마을

문화재

A.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외로 19

T. 064 760 3578

H. seongeup.seogwipo.go.kr

P. 성읍민속마을공영주차장 이용

제주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성읍민속마을은 옛 제주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정외현의 도읍지로 1400년대부터 약 500년간의 제주의 오래된 모습을 담고 있다. 성곽과 관아, 향교, 초가집 등 옛 풍경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며 활기를 더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느티나무와 객주집으로 활용되었던 유형문화재 조일훈 가옥, 오메기술과 초가장 등의 무형문화재가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다. 옛 전통 가옥을 보존한 곳이다 보니 따로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방체험과 전통문화 체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김영갑갤러리

갤러리

A.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T. 064 784 9907

O. 09:30~17:00

H. dumoak.co.kr

P. 전용 주차장 이용

성읍민속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김영갑갤러리는 제주를 사랑한 사진가 김영갑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사진작가 김영갑이 생전에 쓴 글에는 점점 삭막하게 변해가는 제주의 성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는 생전에 제주의 풍경들을 사진으로 남겼고, 바람을 담기 위해 스스로 바람에 담기는 사람이었다. 말년에 희귀병에 걸려 자신의 몸과 싸워야 했던 고단함 때문이었을까, 사진 속 그의 초상은 그가 새겼던 바람의 굽기만큼이나 깊고 고요해 보인다.



성산일출봉

명소

A.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2

T. 064 710 7923

O.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시까지

H. jejuwnh.jeju.go.kr

P. 성산일출봉주차장 이용

성산반도 끝머리에 솟은 높이 182미터의 봉우리이다. 정상부에는 사발 모양의 분화구가 섬 전체에 걸쳐 있으며 99개의 바위 봉우리로 둘러 쌓여있다. 거대한 성의 모습을 닮아 성산(城山)이라고 불렸으며, 일출을 감상하기 좋다는 의미를 더해 성산일출봉이라고 이름 붙였다. 12월 31일 성산일출제에서는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2007년에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 계와 더불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자연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에리두 CAFE N BEDS

펜션

A.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북개로 37

T. 064 739 5867

H. eridu.co.kr

P. 전용 주차장 이용

2014년에 지어져 신진건축사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펜션으로 모던한 인테리어에 돌담과 감귤나무 등 제주의 요소들을 담았다. 2인실 5개 동과 4인실 2개 동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소음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설계되었으며, 객실마다 작은 마당을 두어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룸에서 엿볼 수 있듯 카페와 숙박 시설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조식을 제공하는 카페는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비정기적으로 워크숍과 콘서트를 진행한다. '먼 곳에 지은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집에 머무는 듯한 안정감과 이국적인 감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눈먼고래

펜션

A.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7길 19-12

T. 010 3757 5560

H. blindwhale.co.kr

P. 전용 주차장 이용

100년 동안 바닷바람과 싸워온 제주 전통 돌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채펜션이다. 둥그런 지붕과 돌담구조, 고재를 활용하여 만든 침대는 과거 제주의 감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 먼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두 마리의 고래가 눈이 멀어 육지에 부딪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눈먼고래라고 이름 지었다. 마을과 면한 '숲고래'와 바다를 바라보는 '바다고래' 중 하나를 골라 머물 수 있는데, 각 고래 사이의 대나무 숲이 특히 아름답다.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도록 각 객실마다 스파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한눈에 보는 제주 여행



- 01. 오설록녹차박물관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235-3 | 064 794 5312
- 02. 용머리해안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064 794 2940
- 03. 촌심이네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24번길 16 | 064 794 4010
- 04. 에리두 CAFE N BEDS |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북개로 37 | 064 739 5867
- 05. 제주월드컵경기장 | 제주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 064 760 3611
- 06. 제주해풍 | 제주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1 | 064 763 1008

- 07. 용두암 | 제주도 제주시 용두2동 | 064 728 3918
- 08. 돈황기 |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15길 30 | 064 724 0228
- 09. 눈먼고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7길 19-12 | 010 3757 5560
- 10. 성읍민속마을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 064 760 3578
- 11. 김영갑갤러리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 064 784 9907
- 12. 성산일출봉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2 | 064 710 7923

제주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제주올레길로 올래?



‘올레’는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의미한다.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천천히 걸으며 즐길 수 있는 도보 여행 코스로 골목길과 산길, 들길, 해안길 그리고 오름까지 연결하고 있다. 발걸음마저 빠르게 걸어야 하는 도시의 생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보낼 수 있다. 말없이 걷다 풍경을 보고, 잠시 다른 생각도 해보고, 중간중간 사진도 찍으며 한결 여유로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주의 풍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 자체도 좋아한다. 무엇보다 각 구역에 따라 저마다의 풍경과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어서, 올레길 코스를 정하는 것 또한 색다른 재미를 준다. 걷는 정도와 시간이 저마다 달라서 걷는 것이 어려운 사람, 혹은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과 맞게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제주는 단순히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마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돌담 사이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서로의 근황과 안부를 물었던 사람 냄새가 묻은 ‘마을’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제주를 찾게 된다. 제주는 따뜻하다. 사람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제주의 포근한 역사가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바람도 많고 돌도 많은 이곳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길을 진정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올레길을 찾는 당신의 필수 아이템

자외선 차단제



뜨거운 햇빛! 비타민 D를 선사해주지만, 동시에 기미와 주근깨도 함께 주는 슬픈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즐거운 올레길이지만, 피부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발라주는 것은 중요하다. 휴대용 스프레이 형 자외선 차단제도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뿌려주는 것도 좋다.

오이



오이는 수분이 많다. 오이 하나를 용사의 검처럼 들고 살짝 한 입씩 베어 먹으며 걸으면, 가벼운 공복을 이기면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도 있다. 단순히 물병을 들고 풀랑풀랑 걸으면 오히려 화장실을 가고 싶은 빈도수만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아삭아삭, 오이를 잊지 말 것!

모자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 준다면, 뒷목과 어깨를 보호해주는 것은 단연 모자가 될 것이다. 챙이 넓은 모자를 준비해서 어깨와 뒷목 주변의 화상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모자를 깜빡 해서 자기 전에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잠을 못 이룬다면, 감자팩을 하는 것이 좋다.

연고, 밴드 등 상비약



길을 걷다 갑작스럽게 벌레에게 물릴 수 있고 혹은 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너무 지나친 걱정으로 많은 약을 준비하면 오히려 짐을 늘려 무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진기



영원히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과 풍경은 단연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우리의 삶은 찰나의 순간의 연속. 그런 찰나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면,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과도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단, 사진만 찍다가 정작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는 말 것!

등산방석



기가 막힌 풍경도 좋지만, 기가 막히게 다리가 아프다면? 그 자리에 잠시 쉴 틈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등산방석은 어느 자리에도 잠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식으로, 다른 잔여물이 잘 묻지 않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견드라 수고한 엉덩이에게 폭신함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문구류



순간의 영감을 받아 떠오르는 생각이나 글귀가 있다면 바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혹은 그게 낙서나 그림이 되어도 좋다. 그 순간을 남기는 것은 영상이나 사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그 순간은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손수건



걸으며 땀을 뚝뚝 흘리는 야성미를 보이고 싶겠지만, 땀원열. 땀의 완성은 얼굴. 우리는 모두 손수건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손목에 손수건을 돌돌 말아 묶어주면 손쉽게 이마와 목의 땀을 닦을 수 있다. 예쁘게 리본을 묶어도 좋다.

04

SEOUL

서울 음식투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전국의 식재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전통방식의 음식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다양한 요리들이 모여, 딱히 지역색이라고 부를 것도 없이 모든 음식의 박람회장 역할을 해왔다. 유능한 셰프들이 대기하고 있는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두 가지 이상의 조리법을 합쳐 만든 퓨전요리, 든든하게 속을 채울 수 있는 서민들의 음식까지, 서울은 말 그대로 행복한 밥상 그 자체다. 그 가운데서 유난히 발전한 음식문화 중 하나는 바로 시장음식과 길거리음식이다. 특별히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한끼를 책임져 주는 음식들. 한 나라의 현재를 보려면 시장으로 가라는 말이 전하는 바는 그만큼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다.

걷기 좋은 도시, 서울

세계여행을 하며 친구가 된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초대했다. 가이드가 된 기분으로 그들의 여행 동선을 짜주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어느 곳을 보여줘야 좋을지 고민이 된다. 당장 서울만 보더라도 구석구석 서로 다른 매력의 장소들이 여행자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 같아서는 며칠의 여유를 두고 그들에게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이 발목을 붙잡는다. 그렇게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은 서촌과 경복궁, 명동과 종로를 아우르는 청계천 일대다. 전통적인 한적함과 사람들의 에너지를 두루 보여줄 수 있는 코스다. 해가 길어져 낮은 따뜻하고 골목마다 해바라기 하는 할머니의 표정이 온화하다. 도심 한복판을 행진하는 고적대의 음악소리. 오래된 벽돌담과 기와. 사람들은 천천히 광장을 걷는다. 사실 이 여행의 묘미는 걷기에 있다. 서촌과 경복궁, 북촌을 지나 인사동과 명동으로 가는 길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첫 번째 목적지 서촌에는 통인시장이 있다. 과거 화폐로 쓰였던 엽전을 이용해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데, 시장의 명물 기름떡볶이와 어묵, 노릇하게 부친 각종 전 요리가 특히 인기다. 배를 든 든하게 채운 다음에는 경복궁으로 걷는다. 마침 정문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리고 있다. 과거의





복장을 재현한 수문장들이 절도 있는 몸짓으로 임무를 교대하고 퇴장한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속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를 세고 있었을까.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를 걸을 때 외국인 친구는 길거리에 걸린 간판의 글씨들이 신기하다고 한다. 유명 프랜차이즈 간판이 낯선 한글로 다시 그려질 때 친구는 비로소 외국의 거리를 걷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다. 그렇듯 여행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익숙했지만 잊고 지냈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 달라짐을 느낄 때 한꺼번에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다.

도심 속 작은 휴양지 청계천을 걸어 마지막으로 한강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다. 밤이 오기 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의 노을을 보기 위해서다. 비늘처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기분. 기분 좋은 하루의 마무리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THE TASTE OF SEOUL

서울의 맛

두 발로 걸어보는 것만큼 한 지역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그 지역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활력 넘치는 지역민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도시에 살며 잊고 지냈던 '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지역의 환경과 역사, 문화를 두루 반영하는 먹거리의 천국이기도 하다. 서울의 대표 재래시장 광장시장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명동이 바로 그 예이다. 육회와 마약김밥, 녹두빈대떡 등 시장 상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던 음식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맛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길거리음식까지. 주머니 걱정 없는 식도락 여행이 시장에 있다.

01

서울 대표 길거리 음식



김밥

돈가스, 오징어먹물, 날치알 등 다양한 재료를 받아들이면서 김밥은 이제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됐다. 바야흐로 김밥의 전성시대다.



떡갈비만차

각종 채소와 과일, 돼지고기를 버무렸다. 순한맛과 매운맛 중에 고를 수 있다. 동그란 완자에 타르타르소스를 뿌려 먹는 것이 포인트다.



김치야채밥이

김치와 각종 야채를 삼겹살로만 다음 소스를 발라 굽는다.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는 식감이 훌륭하다. 원한다면 치즈를 추가할 수 있다.



누텔라크레페

참쌀가루를 넣어 얇게 구워낸 반죽 위에 누텔라 초코잼과 바나나, 시리얼 등을 넣어 크레페가 인기가. 씹을수록 쫄득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간식이다.



떡볶이와 순대

떡볶이의 매콤달콤함과 순대의 담백한 조합은 이미 검증된 바, 꼭 함께 버무려 먹어야 맛이 배가된다. 외국인이 더 많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간식이다.



매운국밥볶음

야식으로만 먹었던 족발을 컵에 담아서 내준다. 쫄깃한 족발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매운 양념과 함께 버무려는데, 맛과 양 모두를 만족시킨다.



닭고치구이

두툽한 닭고치와 대파를 꼬치에 끼워 구워먹는다. 소스의 매운 정도를 고를 수 있다.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면 소금구이를 추천한다.



수세소시지

철판 위에서 수세소시지를 구워 하나 하나 꼬치에 끼워준다. 모양도 맛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스 없이 소시지 자체의 맛을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문어고치구이

한입 크기의 문어를 꼬치에 끼워 직화로 구워먹는다. 특제 양념을 바르고 그 위에 감칠맛 나는 가쓰오부시를 올려주면 완성.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02

광장시장

—
시장음식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남대문시장이 일본에 의해 장악 당하자 그에 반대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광고와 장교 사이에 있다고 하여 광장시장이라고 부르며 3일장이나 5일장이 아닌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세워져 의미가 깊다. 주단과 포묵, 침구, 식료품 등 실생활에 쓰이는 거의 모든 상품을 취급한다. 그 규모에 맞는 먹거리장터 또한 이곳만의 자랑이다. 원래는 야간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식사장소였는데, 최근 일반인들에게 맛집으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특히 육회와 마약김밥, 녹두빈대떡 등이 인기메뉴로 꼽힌다.

A. 서울시 중로구 창경궁로 88 T. 02 2267 0291 O. 09:00~22:00 H. jkm.or.kr P. 종묘지하주차장 이용

03

명동길거리음식

—
길거리음식



서울의 대표 관광지 명동, 그 안에서도 유난히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거리가 있다. 바로 명동역 6번 출구부터 중앙로, 눈 스퀘어에 이르는 먹거리 포장마차 거리이다.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대개 해가 지는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를 지키며 배고픈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대표 간식 떡볶이를 시작으로 꼬치구이, 딸기모찌, 족발과 짜장면 등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길거리로 나온다. 수많은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지만 같은 메뉴를 파는 상점은 없다는 것이 장점. 처음부터 너무 열을 올리다가는 반도 못가서 지치게 될 테니 페이스 조절이 필수다.

A. 서울시 중구 명동 명동역 6번 출구 T. 02 778 0333 O. 15:00~23:00(시간 유동적) P. 명동 내 사설주차장 이용

THE HERITAGE OF SEOUL

서울의 멋

남산, 경복궁, 한강. 서울의 분위기를 가장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서울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로 한 가지 색깔로만 정의 내릴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하나의 장소를 찾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전통과 역사를 찾아보는 한옥마을과 경복궁 일대, 명동과 종로, 동대문을 아우르는 청계천 일대,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태원 거리, 젊은이들의 아지트 홍대까지. 그야말로 테마에 따라 다양한 여행코스를 만들 수 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와 트렌드를 이끄는 신사동 가로수길이 그것이다. 그렇게 서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성원쿠��클래스

요리강좌

A.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45길 3

T. 02 511 3146

H. woncooking.com

먹방, 쿡방 등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들이 유행이지만 사실 이 사람을 빼놓고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바로 요리연구가 정성원이다.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 '라귀진'을 만들고, 다수의 티비 프로그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성원은 사람들에게 보다 깊고 넓은 음식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쿡잉클래스를 만들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안에 담긴 이야기와 영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께 전한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찬거리부터 젊은 사람들을 위한 레스토랑 메뉴, 일품 요리 등을 시연과 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한다. 매달 요리강좌를 진행하지만 예약을 통해 개별수업도 가능하다.



인사동길 전통문화의 거리

명소

A.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안국역 6번 출구

T. 02 734 0222

H. insainfo.or.kr

P. 인사동노외공영주차장 이용

지하철 안국역에서 종로 2가로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 1988년 전통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고, 전통과 현대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외국인의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로 발전했다. 화랑과 표구점 등 미술 관련 상점과 갤러리, 전통 찻집이 많아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한다. 2004년 문을 연 썸지길은 나선형으로 이어진 공예품전문 소품물로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인사동 거리의 간판은 모두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데, 외국 계열의 상점들마저 한글로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낯설지만 정겨운 분위기를 들게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더했다.



인사동 가로수길

명소

A. 서울시 강남구 인사동 신사역 8번 출구

P. 가로수길 내 사설 주차장 이용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까지의 2차선 도로를 말한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늘어진 은행나무가 아름답다. 감각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거리로 디자이너 상점과 옷 가게, 카페, 맛집 등이 늘어서있다. 날씨가 포근한 계절이 오면 가로수길의 진면목이 발휘되는데 테라스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 커다란 개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 인물이 환철한 모델이나 브라운관에 서나 보던 유명인도 종종 보인다. 가로수길의 상권이 커지자 좌우로 뻗어나간 골목들, 일명 세로수길도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다. 좁은 골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진짜 맛집들은 골목 사이에 숨어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

디글집

한옥 게스트하우스

A.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6-5
T. 010 9282 2174
H. blog.naver.com/digighthouse
P. 서촌공영주차장 이용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이 서촌에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다. 한글 디글 모양을 닮은 이 집은 단순히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집의 본질에 대해 닿아있는 공간이다. 공간을 채우는 건 사람의 몫이고 그 안에서 소통을 하는 것은 문화의 몫이라는 생각 말이다. 큰 방과 작은 방, 다락방으로 구성된 단출한 방 구성이지만 마당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나누며 더 커지는 공간이다. 함께 마을을 구성하는 주변 상인들의 물건을 전시해두는 것은 물론이고 두 달에 한 번씩 공연을 기획하기도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 사이 좋게 지내는 일, 그것이 바로 디글집이 꿈꾸는 집의 가치이다.



데님호텔

비즈니스호텔

A.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8
T. 02 2058 1000
H. hoteldenim.com
P. 전용 주차장 이용

30년 전통의 섬유회사를 모기업으로 탄생한 비즈니스호텔이다.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 데님이라는 소재의 자유로움과 젊음을 모티프로 삼는다. 로비와 객실 내부에 데님 작품들이 전시해두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양재천과 시민의 숲, 예술의 전당 등 주변 환경이 좋아 비즈니스 고객을 뿐 아니라 여행객들도 자주 찾는다. 모두 14개 타입, 88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어 연인과 가족 등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론칭쇼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커플 청바지 이벤트나 다이어리 제작 같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한눈에 보는 서울 여행



- 01. 경복궁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02 3700 3900
- 02. 디귤집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6-5 | 010 9282 2174
- 03. 인사동길전통문화의거리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 02 734 0222
- 04. 창계천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 02 2290 7111
- 05. 명동역자골목 | 서울시 중구 명동 | 02 778 0333
- 06. 광장시장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88 | 02 2267 0291
- 07. N서울타워 | 서울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 02 3455 9277
- 08. 예술의전당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원로 2406 | 02 580 1300
- 09. 데남호텔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8 | 02 2058 1000
- 10. 신사동 가로수길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11. 정성원쿠링클래스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45길 3 | 02 511 3146
- 12. 올림픽공원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02 410 1114

서울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빌딩 속의 휴식 청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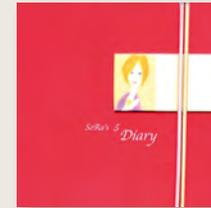
청계천은 '맑은 개울'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 사람들의 놀이터이자 빨래터였다. 서울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무언가로 기억되어 왔다. 청계천은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와의 경계를 흐리며 도심 빌딩 숲 사이에서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한다. 개천 주변으로 늘어난 회사에 발길을 떼는 많은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 후 햇볕과 바람을 즐기며 청계천을 거닌다.

음악가들이 청계천 거리에서 악기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해마다 아름다운 등불 축제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붐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장난을 하고 가을에는 은행잎과 단풍잎이 하천의 물줄기를 수놓으니, 청계천을 찾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도시의 지쳐가는 생활에서 청계천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를 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줬다.

흐릿한 청계천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노곤노곤해진다. 풍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든다. 가을가에는 푸른 풀이 자랐고, 개천 위에는 오랜 시간을 지나 온 공구상가와 먹자골목, 그리고 헌책방골목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청계천 거리에 스무 개가 넘는 다리는 정교하고 고즈넉하다. 서울의 이야기가 아로새겨진 청계천 거리는, 우리에게 총 천연의 계절 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네 삶의 색깔일지도 모르겠다.

사계절 청계천을 거닐며 들으면 좋을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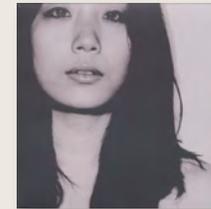
봄 <데이트> 이소라



풍차가 도는 조각 공원. 곰게 수놓인 튜울립 꽃.
모로코 풍의 궁전 지나 뱅글뱅글 회전목마들.
하늘엔 쌍성 에드빌론. 봉봉 나르는 커피 잔.
분수대. 시원한 오후 지나 까만 밤하늘 불꽃 풍뎡.

봄의 기운이 선연해질 즈음에 실랑거리는 봄바람이며, 울망졸망 핀 풀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엉덩이가 자꾸 들썩여 다리를 움직이고만 싶어지는데, 이걸 어쩌면 우리가 봄마다 갖게 되는 불치병일지도 모르겠다. 이 소라의 몽환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봄기운이 더욱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부른다. 마음 한 켠에서 도담도담 자라나는 봄을 향한 사랑은, 단연 이 노래를 부르고 들으며 청계천으로 향하게 된다. 매년 맞이하는 봄은, 어쩔 때면 이리도 행복한지.

여름 <오늘은 하늘에 별이 참 많다> 오지은



오늘은 조금 돌아가도 지하철 말고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일찍이 버스에서 내리고서
타박 발걸음 내디디면 조용한 밤 산책.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구나. 오늘 하늘에 별이 참 많구나.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이상하지.

여름 하면 뜨겁고 습한 보통의 여름날을 기억하겠지만, 실은 여름의 모미라 하면 단연 '밤'의 시간이었다. 해는 사라지고 땅은 더 이상 뜨겁지 않지만, 딱히 밤공기가 서늘하지 않아서 혼자 오랜 시간을 걷기에도 딱 좋을 때 문이다. 여름 밤, 풀벌레 우는 소리와 함께 청계천 거리를 걷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다 줄까. 그래, 여름에는 타박 발걸음을 내딛고 조용한 밤 산책을 하기 딱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엔 하늘에 별이 참 많겠지.

가을 <요즘 너 말야> 제이레빗



사실 너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 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가을 특유의 고즈넉한 기운은 괜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생각은 고민으로 이어지고, 그런 고민은 일상을 가득 메우기 일쑤다 보니, 가을은 사실 고민의 계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틈바구니 사이에서 조용한 청계천을 거닐며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산만한 생각을 정갈하게 정리해 준다. 가을 길 위에서, 요즘의 나에 대해 생각하면서.

겨울 <야생화> 박효신



하얗게 피어난 얼음 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한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겨울은 외롭다. 흰 눈 쌓인 길 위로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으면 더욱 그래 보인다. 어쩌면 겨울에는 '끝'의 이야기가 많이 서려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겨울바람 맞으며 바라보는 청계천에 얼음 꽃 하나가 얼굴을 내민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일 테다.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마음일 테다.

05

BUSAN

부산 음식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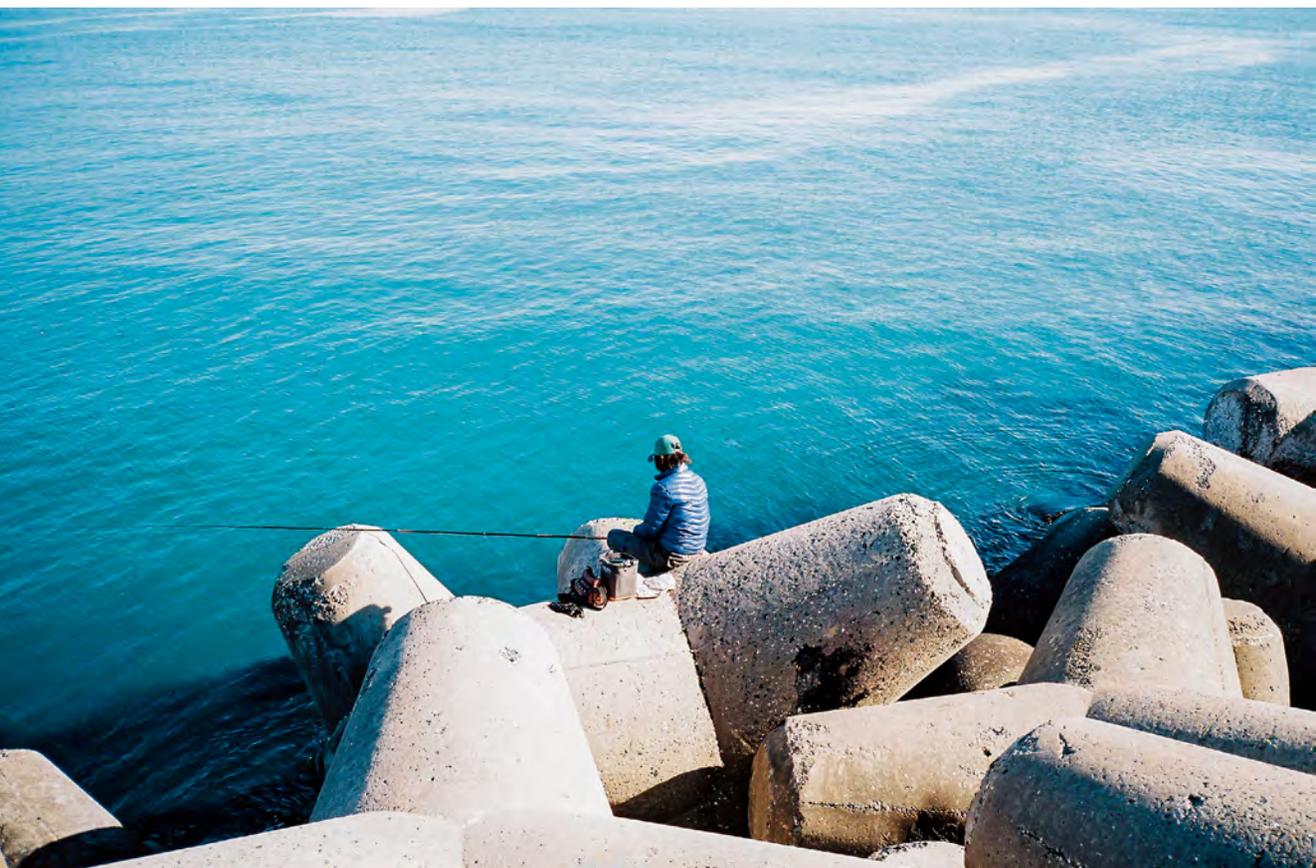
부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동해와 남해를 접해 해산물이 풍부하다. 싱싱한 생선을 회로 떠, 날 것 그대로 먹기도 하고 소금 간을 한 뒤 구워먹기도 한다. 부산음식은 간이 세고 양념과 젓갈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운 날씨에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6·25 전쟁을 전후해 많은 타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모여 들면서 부산의 음식은 자연스럽게 '전국의 맛'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기장의 멸치회나 동래의 파전, 곰장어 요리 등 부산의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되, 실항민의 냉면 대용으로 탄생한 밀면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완당을 부산의 맛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거기에 변화한 자리마다 들어선 퓨전식 식당들은 젊은 사람들의 입맛 지형을 단숨에 변화시키기도 했다. 어쩌면 부산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바로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지도를 하나쯤 챙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 부산스러운 여행, 부산



부산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풍경 중 하나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가득 메운 인파다. 그을린 얼굴과 어깨, 건강한 사람들의 활짝한 풍경 같은 것들. 그러나 몇 번의 여행을 통해 부산이 비단 여름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가령 감천문화마을의 이국적인 풍경은 봄의 설렘과 닮았고, 중앙공원과 용두산공원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은 가을의 정취와 어울린다. 송도해수욕장의 겨울 바다는 또 어떨까. 백사장에 눈이 쌓이고 그 위를 걷는 갈매기의 조그만 발자국들. 그야말로 모든 계절 동안의 부산이다.

부산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잡아 짐을 부리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남포동이다. 지도 위의 이 마을은 그저 작은 면을 나타낼 뿐이지만 실제 이곳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한 여행자들의 천국이다. 먼저 자갈치시장의 이른 아침, 먼동이 터오기 전부터 선원들은 갓 잡은 생선더미를 쏟아내고 서로 목청을 높여가며 경매에 한창이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드림통에서는 장작이 타오르고,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시면 날것의 에너지가 몸 속으로 단숨에 들어차는 느낌이다. 갈매기에게 먹이를 던지기도 하고, 멀리 산복도로 위에 차곡차곡 포개진 집과 골목을 보며 그곳 사람들 특유의 억양을 상상하기도 한다. 바다를 등지고 광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골목마다 이동식 상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즉석에서 조리한 길거리음식들, 이를테면 씨앗호떡이나 비빔당면, 유부주머니같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부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분주함이 좋다. 아주 커다란 재래 시장과 조그만 책방골목,形形色색의 마을을 걸을 때 그 부산스러움이 비로소 부산의 진짜 모습처럼 느껴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산은 늘 떠들썩한 도시였던 듯하다.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오래된 풍경과 닿아 공명할 때, 마치 부산이 고향인 사람처럼 과거의 향수를 느끼곤 한다.



THE TASTE OF BUSAN

부산의 맛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 부산을 한 가지 식재료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풍요로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 도시에는 그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들이 넘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부산을 지켜온 토박이들의 음식부터 이주민들의 타지 음식, 그 둘을 합친 새로운 개념의 퓨전 음식들까지. 그야말로 총천연색 음식의 향연이 바로 부산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부산 편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길거리음식과 부산 젊은이들의 메카 전포동 카페거리의 대표 음식점을 소개한다. 몸에 좋은 두부로 집 밥의 맛을 내는 작은 가게와 천천히 즐기는 오후의 덮밥, 줄을 서게 했지만 어쩐지 더 기대되는 간식들까지. 그야말로 맛있는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01

두부공장

—
찌개와 알밥



두부공장은 부산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 전포동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다. 직접 두부를 만들지는 않지만 맛있고 질 좋은 재래식 두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 꽃게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어디서나 손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20년간 특급호텔 한식요리사로 일한 박정혜 셰프의 지휘로 그 맛이 한층 고급스러워졌다. 특히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제공되는 담백한 순두부는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하다.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는 집 밥을 만들고 싶다는 한식요리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가장 평범한 음식이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A.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46번길 64 T. 070 4403 6235 O. 11:00-21:30(일요일 휴무) P. 전포동 인근 민영주차장 이용

02

CAFE서울키친

뽕밥 파는 카페



2013년 문을 연 전포동의 대표적인 슬로우 카페이다. 새롭고 특이한 가게들이 속속 문을 여는 이 지역에서도 처음의 여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다. 무심한 듯 포인트를 준 소품들이 특히 눈에 띄는데, 커다란 창으로 햇빛이 드는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된다. 스콘이나 티라미수에 신경을 쓰는 카페이지만 정작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뽕밥을 더 많이 주문한다. 두툼하게 잘 오른 연어를 잘 구워 밥 위에 올려놓는 단순한 플레이팅이지만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장으로만 맛을 내 건강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A.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20 2층 T. 051 818 6585 O. 12:00~20:30(월요일 휴무) H. [instagram.com/seoulkitchen](https://www.instagram.com/seoulkitchen)

03

비프(BIFF) 광장 길거리음식

부산명물



부산의 길거리음식 1번가로 단연 남포동 영화거리 인근을 꼽는다. 특히 비프(BIFF) 광장에서 깡통시장, 자갈치시장으로 이어지는 일대 거리는 그 규모나 종류만 봐도 먹거리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의 명물 씨앗호떡은 기본이고 유부 속에 당면을 넣어 묶은 유부주머니, 기다란 가래떡을 나무 꼬치에 꽂아 먹는 떡어묵, 노릇하게 구운 만두피에 오징어무침을 싸먹는 납작만두 같은 음식은 부산이 아니라면 맛보기 힘든 메뉴들이다. 최근 그 유명세로 인해 줄을 서는 건 기본이 됐지만, 순서가 되어 음식을 받고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느끼는 맛은 오랜 기다림을 보상받기에 충분하다.

A. 부산시 중구 비프광장로 36 T. 1688 301

THE HERITAGE OF BUSAN

부산의 멋

부산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어느 장소든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거의 매역마다 여행자를 유혹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가장 변화한 거리 중 하나인 서면역과 자갈치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서면역 지하에 펼쳐진 상가거리는 그 규모가 크고 유동인구가 많아 자칫 방심했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보수동 책방골목, 강동시장과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과 영화의 거리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여행자들의 중심에는 자갈치역이 있다. 부지런히 걸어도 하루가 턱없이 부족할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해운대와 광안리로 대표되는 해수욕장 거리와 깎아지른 듯한 자연의 조각품 태종대, 종합전시관 백스코까지, 매력적인 코스들이 여행자들을 기다린다.

자갈치시장

수산물시장

- A. 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 T. 051 245 2594
- H. jagalchimarket.bisco.or.kr
- P.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이용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으로 남포동과 충무동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명칭에 관해서는 자갈이 많다고 하여 자갈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오이스, 보이소, 사이소'라는 문구처럼 누구나 쉽게 둘러보며 활력 넘치는 시장 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 싱싱하고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비롯해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생선구이를 보고 싶다면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배가 들어오는 새벽에는 그날 잡은 생선을 경매하는 목소리들로 한창 떠들썩하다. 나무 데크가 깔린 수변공원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고, 멀리 낚시하는 사람들의 풍경 또한 정겹다.



부평깡통야시장

야시장

A. 부산시 중구 중구로33번길 32

T. 051 243 1128

O. 19:00~24:00(야시장)

P. 부평공영주차장 이용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리는 부평깡통시장은 밤이 되면 또 다른 옷을 입는다. 바로 야시장이 열리는 것. 생필품을 팔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이동식 행상들이 자리를 잡으면 약속이나 한 듯 사람들이 모여든다.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연은 물론이고 터키의 전통요리 케밥이나 일본의 오키노미야키, 베트남식 튀김만두 짜오짜오 등 다양한 종류의 세계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처음 보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려면 점심을 거르고 가는 것이 좋다. 아치형의 아케이드 지붕이 높게 솟아있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우측통행은 기본이다.



용두산공원

공원

A. 부산시 중구 용두산길 37-55

T. 051 860 7820

O. 08:30~22:00

H. yongdusanpark.bisco.or.kr

P. 용두산공원공영주차장 이용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로 용두산 정상에 위치한 공원이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신사가 세워진 곳이었으나, 현재는 척화비와 총훈탑, 충무공 이순신 동상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부산 일대와 영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120미터 높이의 부산타워는 부산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유명하다. 낮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야경이 멋진 밤에는 주로 여행객들의 출입이 잦다. 완만한 산책로부터 나무가 울창한 오솔길, 변화한 시내에서 바로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까지, 공원에 닿는 다양한 루트가 있어 매번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다.

하운드관광호텔

부티크호텔

A.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가길 10

T. 051 809 0008

H. houndhotel.kr

P. 전용 주차장 이용

2015년에 문을 연 서면의 대표적인 부티크호텔이다. 가든 스파, 펜트하우스, 복층 구조 등 열 개의 객실 타입으로 다양한 고객들의 취향을 충족시켰다.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을 표방하며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로 스파를 즐기기 위해 호텔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특히 풀빌라하우스는 자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하여 특별한 날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호텔과 함께 운영하는 이자카야에서 조식을 제공한다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이다. 뷔페식이 아닌 따로 플레이팅 된 한식과 양식 두 가지 종류로 선택이 가능하다.



블루보트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A. 부산시 중구 광복로85번길 15-1

T. 010 8511 9049

H. blueboat-hostel.com/Nampodong

P. 남포역 인근 민영주차장 이용

남포동의 대표적인 게스트하우스로 해운대 본점에 이은 부산의 두 번째 블루보트 시리즈이다. 건전한 여행문화를 정착을 위한 항해의 콘셉트로, 자유롭고 깔끔한 배려의 공간을 표방한다. 모두 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은 2인실부터 8인실 등의 도미토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 사물함과 스탠드가 제공된다. 침대는 블라인드로 가림막을 칠 수 있어 최대한 개인적인 편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전용 객실과 파우더 룸은 이곳만의 또 다른 자랑이다. 24시간 개방되는 공용공간에서는 마음에 맞는 여행자들이 모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분위기가 좋다면 공짜 맥주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대해볼 것.

한눈에 보는 부산 여행



- 01. 김해국제공항 |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1661 2626
- 02. 부평강통야시장 | 부산시 중구 중구로33번길 32 | 051 243 1128
- 03. 용두산공원 | 부산시 중구 용두산길 37-55 | 051 860 7820
- 04. 자갈치시장 | 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 051 245 2594
- 05. 비프광장 | 부산시 중구 비프광장로 36 | 1688 3010
- 06. 블루보트게스트하우스 | 부산시 중구 광복로85번길 15-1 | 010 8511 9049

- 07. 하운드관광호텔 |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가길 10 | 051 809 0008
- 08. CAFE서울키친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20 2층 | 051 818 6585
- 09. 두부공장 |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46번길 64 | 070 4403 6235
- 10. 태종대 | 부산시 영도구 전망로 316 | 051 405 2004
- 11. 누리마루APEC하우스 |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로 116 | 051 744 3140
- 12. 해동용궁사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 051 722 7744

부산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국제시장에 담긴 부산의 정서



부산 국제시장은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1945년, 절실히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후, 일본인들이 전쟁에서 이용했던 물자를 팔아 돈을 벌려고 했던 목적으로 장터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피난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활기를 띠었고, 다양한 품목의 상품들이 거래되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였다. 빛을 머금은 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득했고, 지금의 국제시장이 탄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민들의 애환과 다양한 감정이 녹아있는 국제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국제시장> 또한 부산의 국제시장 거리에 또 다른 주목을 이끌었다. 무엇보다 부산 특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많은 곳 중에서 한 곳으로 꼽히기 시작했다. 물론 지나치게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피해와 문제도 속출했지만, 국제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은 그치지 않고 있다.

부산 특유의 떡볶이, 오징어 채, 파전, 씨앗호떡 등 가짓수도 다양한 국제시장의 먹거리 또한 빠질 수 없는 여행의 묘미가 된다. 화려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거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골목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이 이야기 되었고, 그렇게 지금의 국제시장을 만들어냈다.



국제시장 2014 윤제균 감독

부산의 국제시장 거리 자체를 영화로 만들어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었다. 전쟁과 가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휴머니즘을 녹록히 느낄 수 있다. 영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부산에 있다는 기분에 흥뻑 빠져있을 것이다.

부산 아이기!
부산을 즐길 수 있는 영화 추천



변호인 2013 양우석 감독

<변호인>은 지금의 민주주의가 발현되기 전,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다. 부산의 흰여울길이 독보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원 테이크'의 표본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보다 정감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폴폴 나는 영화이다.



친구 2001 광경택 감독

수많은 유행어와 패러디를 낳았던 <친구>는 아직도 많은 남성들의 청춘 영웅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부산이 영화촬영지로 부각되었던 시발점이나 다름없었다. 함께 있을 때, 두려운 게 없었던 시절의 노래.



해운대 2009 윤제균 감독

부산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아름다운 부산의 모습을 웅장하게 담아냈다. 평화로운 부산에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해운대 바다가 훑쓸고 간 자리에 남아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범죄와의 전쟁 2012 윤종빈 감독

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부산을 배경으로 남자들의 마초적인 세계를 그려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었다. 부산 사나이들을 보면 이제는 자연스레 이런 말을 떠올리게 된다. "거, 살아있네!"

찾아보기

평창

봉평문화마을 033 330 274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애강나무길 14

미가연 033 335 8805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봉로 108

일송정 033 333 704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93

정강원 033 333 1011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금당계곡로 2010-13

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 033 339 000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황태회관 033 335 579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대관령삼양목장 033 335 504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대관령800마을 033 332 101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가시머리길 36-16

전주

삼백집 063 284 2227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22

한옥마을 063 282 1330
전주시 완산구 교동

안녕, 제제 게스트하우스 063 285 0085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33-9

전일갑오 063 284 0793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6

조점례남문피순대 063 232 5006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2-198

전동성당 063 284 3222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학인당 063 284 9929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45

심원첫집 063 632 5475
남원시 모정길 21-3

지리산둘레길 055 884 0850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제주

춘심이네 064 794 4010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24번길 16

에리두 CAFE N BEDS 064 739 5867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북개로 37

제주해풍 064 763 1008
제주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1

돈향기 064 724 0228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15길 30

눈먼고래 010 3757 5560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7길 19-12

성음민속마을 064 760 3578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음정의현로 19

김영갑갤러리 064 784 9907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을 삼달로 137

성산일출봉 064 710 7923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을 일출로 284-12

서울

디글집 010 9282 2174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6-5

인사동길 전통문화의 거리 02 734 0222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안국역 6번 출구

명동 길거리음식 02 778 0333
서울시 중구 명동 명동역 6번 출구

광장시장 02 2267 0291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88

데님호텔 02 2058 1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8

신사동 가로수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8번 출구

정성원쿠링클래스 02 511 31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45길 3

부산

부평강통야시장 051 243 1128
부산시 중구 중구로33번길 32

용두산공원 051 860 7820
부산시 중구 용두산길 37-55

자갈치시장 051 245 2594
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비프광장 1688 3010
부산시 중구 비프광장으로 36

블루보트게스트하우스 010 8511 9049
부산시 중구 광복로85번길 15-1

하운드관광호텔 051 809 0008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가길 10

CAFE서울키친 051 818 6585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20 2층

두부공장 070 4403 6235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46번길 64



한식의 맛이다

수많은 문화경이든, 수많은 문화경이든, 한식의 맛은 한식의 맛에 한하여 맛을 구하지 않는다.
한식은 한식의 맛이다. 한식은 한식의 맛이다. 한식은 한식의 맛이다.



세계 미식가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여행지 홍콩, 싱가포르에
한식의 건강한 맛을 전하는 한식당 찾기!

〈한식당 가이드북 홍콩, 싱가포르편〉 발간

한식재단은 홍콩, 싱가포르 지역의 우수 한식당을 소개하는 〈한식당 가이드북 홍콩, 싱가포르편〉을
발간했다. 한국 음식이 지닌 '조화롭고 건강한 맛'을 담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현지 한식당을 만나보자.



한식당 가이드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출시 예정

*'Korean Restaurant Guide, kff, Korean restaurant' 등을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이드북에 실린 내용은 한식세계화공식홈페이지(www.hansik.org, www.koreanfoodnet)에서 온라인 버전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